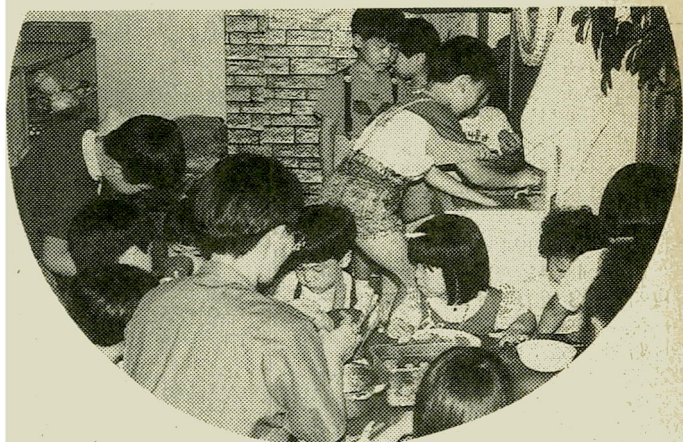


93. 7. 20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자녀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탁아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여성개발원내의 직장탁아소.

『직장탁아소』추진 연대모임 결성

여성단체 병원勞聯등 사례발표회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라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장탁아소의 설치를 위해 노조 여성단체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병원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7개 전국단위 노조연맹 및 여성단체들은 지난 6월10일 「직장탁아소 추진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한뒤 그 첫사업으로 21일 오후3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2층 회의실에서 「직장탁아소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회」를 연다.

지난91년 8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5백명이상 사업장은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전국 2백33개의 사업장중 직장탁아소를 설치한 곳은 28개, 탁아소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육수당을 주는 사업장은 5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단체협약에 「직장탁아소설치」를 명시한 곳은 서울대병원 세광병원 오리엔트시계노조등으로 이중 경기 성남시의 오리엔트시계는 상시 여성근로자 5백명미만의 중소기업장임에도 노조가 탁아소설치를 주도해 이미 지난해 6월부터 회사근처 27평의 공간에 「동방어린이집」이라는 직장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탁아소추진모임의 위원이었던 오리엔트시계 노조의 池康根씨(28)는 『탁아소추진과정에서 회사측의 비

협조적인 태도, 탁아교사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갈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학교,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병원 금융기관등도 직장탁아소가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王仁順사무국장(31)은 『직장탁아소는 여성근로자의 지속적인 평생노동권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고 기업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현재 권고규정이라 실효성이 미비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학교 병원 금융기관등까지 탁아소설치를 확대하며 예산확보 대출 및 세제상 지원확대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金熹暲)

단신

「친구들과의 만남」교육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주에 **가출충동을** 갖고 있거나 상습가출의 경향이 있는 청소년, 학교에서 징계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친구들과의 만남」 교육을 진행한다. 또 1